한전 서울지역본부, 380V 동력승압 지난해 '1,594호' 실적

한전서울지역본부는 지난해 1천5백94호의 380V 승압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해 일반전압의 2백20V승압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력승압단일화 및 승압사업을 올해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서울지역본부의 한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지역의 경우 3백80V승압사업이 1천5백94호의 실적을 거두었는데 올해 동력승압사업규모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로 공급되던 동력전압이 단일화됨은 물론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전선유통업계, 소비자 직거래 확대 후유증 출혈경쟁

전선류 유통업체들이 극심한 판매부진과 출혈경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선류 유통상인들은 최근 판매부진으로 인해 매출액이 지난해 말에 비해 60%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그나마 가격경쟁의 심화로 인해 유통마진율이 5% 내외로 떨어져 물류비용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청계천의 유통업계 사장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겨울철 건설경기의 부진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제조업체들이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한전, 한국통신 등 정부투자기관과 맺은 관급공사의 공급단가가 적정단가의 50~60% 수준에 불과, 손해를 많이 본데다 전기동 PVC 등 주요 원자재 값인상으로 채산성도 나빠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 직판을 시도함으로써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산 상가도 이같은 실정은 마찬가지다. 이 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는 "전선류 유통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최소한의 유통마진도 확보하지 못해 임대료가 싼 변두리 지역으로의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상인들은 전선류 제조업체에 대해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를 중단, 과당경쟁을 부추기지 말 것과 정부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기설비 계약점검 수수료 대폭조정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장 : 장정곤)는 오는 4월부터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수용가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와 함께 통합지로통지서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올 상반기 중 일반용 전기설비 계약점검 수수료를 현행 16단계에서 10단계로 조정,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 1/4분기부터 장기계약과 다수 수용가 계약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각각 3~5% 수준에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제16대 국회의원선거투·개표소 안전점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전국 중요문화재 특별점검 ▲대입 수학능력시험장 특별관리 ▲전국 재래시장 동절기 화재예방 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올해부터 유흥주점 노래방 목욕탕 관공서 시장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허가, 또는 신고때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첨부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10만개 다중이용시설을 특별관리, 전기재해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또 오는 2002년 765kV 변전설비 상업운전에 대비, 765kV 송전망 건설현장 답사와 함께 제어계통 회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올 농사철을 앞두고 오는 3월부터 전국 11만5천 가구에 대해 농사용 전기설비 점검 봉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안전사용과 관련된 내용 및 불합격 설비의 개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수용가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안전검사결과 통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실험실 보유장비 기업에 제공

용접기술은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첨단기술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자동화, 고능률화, 고정밀화 및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산공정기술연구팀의 용접기술 연구그룹은 국내 출연연구소중 유일하게 용접관련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용접기술 연구그룹은 특히 전통적 용접기자재 분야에서 관련기업의 기술지원과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술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터 방식으로 지원하고 신기술, 신상품 보급을 위한 세미나도 개

최할 예정이다. 인터넷 홈페이지(www.kitech.re.kr/weld)를 통한 애로기술 상담 및 정보 제공도 진행하고 있다.

용접공용실험실을 운영, 보유한 모든 장비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보유기술 및 장비로 용접재료 생산라인과 용접기자재 품질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 제품의 품질향상과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공정개발 및 생산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장비 및 기술을 확보해 재료·물성공용실험실 등과의 연계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접기술 연구그룹은 세계 최고 품질의 용접기자재 개발, 첨단 용접기술 보급, 용접관련 기술정보 보급을 위한 인터넷 환경 구축,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기능 제고, 하부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산전동공구 내수점유율 급신장

국산 전동공구제품의 내수시장점유율이 빨라지고 있다.

2월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양전기(주)를 비롯해 LG산전(주) 등 국내업체들의 꾸준한 기술개발과 신제품 판촉강화로 국산전동공구 시장점유율이 '80년대 초반 청계천 등 주요유통시장에서 10%에도 못미쳤으나 최근들어 50%선까지 늘어났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시장은 일본산 제품이 거의 독점하다시피했다. 이 같은 현상은 '90년대 초반 들어서도 보쉬, 히타치 등 외국제품에 비해 국내업체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은 기술개발 성과가 가시화된 '90년대 중반부터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이제는 국내시장을 주도하게 됐다.

특히 IMF경제위기는 국산제품 가격경쟁력 제고의 전기가 됐다.

환율급등으로 수입제품단가가 높아져 계양·LG 등 전동공구전문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됐을 뿐 아니라 국내 영세업체들의 연쇄부도에 따른 시장공백을 탈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상가들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기술력이 높아진 국산제품 구매에 나선 것도 시장점유율을 높힌 이유다.

실제로 불과 4~5년전만해도 전동공구 유통상가가 밀집해 있는 청계천에서 20여군데에도 못미치던 국내제품 전문대리점 수가 현재는 100여군데로 증가했다.

계양전동공구 대리점 관계자는 "가격과 기술수준면에서 수입제품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런 추세라면 4~5년 내로 국내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산 전동공구 '소비자 외면'

중국산 전동공구, 조명 등 수입 전기기자재들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유통업계에 따르면 '97년말 외환위기이후 꾸준히 늘어나던 중국산 전동공구·조명 제품유통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감소, 영세업체를 제외하고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통업체들은 외환위기때 저가제품을 선호해 일단 중국산 제품을 사용했던 이용자들이 품질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이 굳어져 다시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전동공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사장은 "중국산 제품이 가격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싸지만 품질면에서는 아직까지 국산제품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가격이 비교적 싸 한번 쓰고 버리는 진동드릴이 유통되긴 하지만 산업용 제품은 수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명 관계 사장도 "비교적 저가제품이 일부 유통되기는 하지만 현재 유통되는 제품들은 오스람등 유명외국 제품과 국내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김장기 조명유통협의회 회장은 이런 현상에 대해 조명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경향이 디자인이 뛰어나거나 비싸지만 고효율인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반해 중국산은 아직까지 소비자의 시선을 끌만큼 품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원텍시험연구소, 美 UL등 8개국서 공인

국내 해외인증 컨설팅 분야에서 알려진 (주)원텍 부설 원텍시험연구소(대표 : 김인철)의 장점은 유수의 해외규격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소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국내 컨설팅 업체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은 (주)원텍의 시험결과를 인정 받게됨으로 인해 인증비용을 크게는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소 제조업체에게는 초기 자금부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원텍은 해외 8개국으로부터 공인된 시험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 공인시험소의 내역은 미국의 UL·FCC, 캐나다 CSA, 스웨덴 SEMKO, 독일 TUV PS, TUV Rheinland, 노르웨이 DNV 및 일본의 VCCI로부터 공인된 시험소이다.

특히 이중 미국의 UL, 캐나다 CSA, 스웨덴 SEMKO, 노르웨이 DNV로부터 공인된 시험소는 아직 국내에서 (주)원텍만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

또 국내에서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KOLAS 공인시험검사 기관으로 공인된 제1호의

사설 규격인증 전문업체이며 정보통신부로부터는 전자파적합등록(EMC) 및 전기통신기자재 안전시험에 대한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이한 (주)원텍은 지난해 12월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본사를 서울 서초동에서 성남시 상대원동 SK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함과 동시 종합인증 서비스공급 체제를 구축한 (주)원텍은 안전규격, 전자파규격, 통신규격, 신뢰성규격, 품질규격에 대한 시험, 컨설팅 및 인증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규모로는 총 45명의 인원과 성남본사에 시험설비 및 경기도 광주에 전자파 시험설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3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00여명의 고객을 확보, 연간 1,500여건의 시험건수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코아, 사업 확장 '공격 휘슬'

규소강판 코어 전문 생산업체인 한국코아(대표 : 유광윤)가 지난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데 힘입어 사업다각화를 통한 공격적인 사업확장에 나섰다.

그동안 전자·전기제품용 규소강판 코어를 생산해온 이 회사는 올해 최근들어 수요가 늘고 있는 이동통신용부품과 수정진동자·발진기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로 하고 대대적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내친김에 이동통신부품업체로의 변신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코아가 이처럼 기업 변신을 추진하는 까닭은 지난해 사상유례없는 사업호조로 투자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외형매출은 1,145억원, 경상이익과 순이익도 93억원과 72억원으로 창사이래 사상최대의 흑자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거둔 경영성과는 규소강판 코어 수요가 폭증한 것도 있지만 세계수준의 코어금형기술을 통해 코어 제품 불량율을 400ppm(100만개당 불량 400개) 이하로 낮추는 품질혁신을 이룩한 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코아는 올해부터 이동통신기기용 부품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미 이 회사는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기용 듀얼모드 주파수합성기(PLL)를 개발했으며 발진기와 수정진동자 등도 개발, 거의 상업화 단계까지 진입했다.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PLL과 수정진동자를 본격 양산할 계획』이라면서 『이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수백억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사는 올해 40억원을 투입해 포항공장의 생산라인을 증설, 모터코어의 생산량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시장에도 눈을 돌려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 미주시장을 적극 공략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유광윤 사장은 『이 같은 사업다각화와 해외시장 개척 전략이 본궤도에 오르는 2005년

에는 통신부품 부문 매출 1,000억원을 포함해 3,5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고 말했다.

작년 퇴출 'LG산전 발라스트팀' 안정기 시장 새 '둥지'

지난해 6월말 결국 팀이 해체되면서 퇴출당한 불운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던 LG산전 자동화기기 사업부 발라스트팀의 팀원들. 이 불운의 주인공들이 안정기업체에서 자리잡으면서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LG산전 발라스트팀의 인력은 모두 19명. 이중 절반 정도인 10명은 안정기 전문업체인 라이트전자를 설립하고 안정기시장에 뛰어 들었다. 공장장이었던 김창현 사장과 설계팀장이던 강복연 영업부장 등이 이 회사의 핵심 멤버. 이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내수시장보다는 미국·일본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라이트전자를 안정기 전문업체로 키우고 있다.

발라스트실장이던 강성관씨와 조길형씨 등 2명은 고압방전등용 안정기 분야에서 주목받는 벤처기업인 룩스텍의 기획팀장(이사)과 책임연구원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LG산전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룩스텍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조길형 책임연구원은 LG산전에서 개발·생산·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친 팔방미인으로 평가받고 있어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에 있어 핵심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씨는 안정기 전문업체인 두영전자에 이사로 스카우트돼 이 회사가 최근 추진하는 사업 다각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두영전자는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 백라이트 컨버터, 콤팩트(전구형 형광등), 메탈할라이드등용 안정기 등으로 취급품목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

이밖에 2명은 안정기 관련 개인사업을 벌이는 등 LG산전 안정기 인력 대부분이 안정기업계에 다시 둥지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오직 안정기 하나로 외길을 걸어온 이들이 재기에 성공해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안정기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 일르킬 수 있을지 자못 기대가 크다.

한전, 발전사업단 확대 개편

한국전력이 발전부문을 6개 사업단으로 나누고 전력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전력거래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전은 발전부문을 사실상 사업부제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산업자원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마치고 이사회를 열고 이를 확정했다.

한전은 발전부문 분리를 전제로 기존 수화력사업

단을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부발전사업단 등 5개 사업단으로 재편했다.

총괄사업단(Leading Company)인 남동발전사업단은 상임이사가, 나머지 4개 발전사업단은 1직급(처장)이 각각 맡는다. 원자력사업단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기존 자재본부와 기술본부는 폐지된다.

한전은 해체되는 자재본부와 기술본부의 인력과 기능을 발전사업단에 배분해 발전사업단의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신설, 5개 화력사업단과 원자력사업단이 생산한 전력을 주식거래처럼 매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전력거래시장을 모의 가동시켜 전력거래의 관행을 정착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한전 내부 별도조직으로 운영된 후, 입법화가 이뤄지면 비영리 특수법인인 한국전력거래소(KPE Korea Power Exchange)로 독립하게 된다.

한전은 대외사업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2개처(해외사업처 KEDO원전사업처)를 두어 해외전력사업 및 KEDO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인 해외사업은 추진부처가 제각기 달라 인력이 중복되거나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 한전은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하고 기술품질 업무를 충실히 수행키 위해 기술부사장 밑에 1실 1처(품질보증실 원자력안전처)를 보강,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한전 본사 조직은 2부사장(판매, 발전) 4본부(구조조정, 관리, 자재, 기술) 4사업단(판매, 계통, 수화력, 원자력)에서 2부사장(판매, 기술) 2본부(구조조정, 관리) 1소(전력거래소) 9사업단(판매, 송변전, 남동발전, 중부발전,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원자력, 대외)으로 바뀌며 임원 등 예산정원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현재 비여 있는 부사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하고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임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전은 앞으로 조직, 인력 및 회계제도를 정비해 오는 4월부터 경쟁구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단별로 경영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한전의 이번 조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의 입법화가 지연되는 공백을 줄이고 법통과가 이뤄지는 즉시 경쟁체제 구도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사전에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구조개편이 지연되는 기간을 새로운 경쟁시장에 적응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며 "향후 전력시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저압설비 대대적 정비

한국전력은 올해 전국 대도시 과부하밀집지역 8,000개소의 저압설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한전은 지난해 서울 충무로와 대전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블록단위 저압설비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저압고장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이를 확대 시행한다.

특히 한전은 동력 승압·변대단위정비·불량 인입선 교체공사 등 보수단위사업별로 관리·시공파트가 제각각 달라 '각개격파식'으로 시행하던 종전 사업 추진방식을 바꿔 가공·지중·내선 등 관련 공사 및 예산을 통합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사업과 연계해 아직까지 110/220V 양전압을 쓰고 있는 일부지역을 220V로 단일화하는 한편 380V 동력승압 사업도 병행 시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한전은 올해 350억원의 예산을 배정, 판매사업장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정비대상 구역을 블록단위로 선정·추진키로 했다.

한전 배전처의 관계자는 "저압설비가 개선되면 도심지 복잡지역의 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저압고장이 대폭 감소해 정전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밝혔다.

전선 단체계약 급증 작년 실적 1천30억원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양시백)은 지난해 총 1천30억900만원 규모의 단체계약 실적을 올려 전년 '98년 6백38억원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조합은 지난해 단체계약 실적이 이같이 늘어난 것은 발주기관인 한전이 정부의 고용증대 방침에 따라 송배전 구매물량을 확대한데다 765kV 가공송전용인 카디날(ACSR 480SQ)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물품별 계약실적으로는 ▲ACSR 4백11억4천200만원 ▲ACSR 480SQ(카디날) 2백61억9천300만원 ▲ACSR/OC 1백35억원 ▲절연전선 1백62억7천200만원 ▲전력선 58억9천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듀폰, 변압기 수리위한 新절연시스템 도입

수명이 다한 대형변압기등을 재활용하는 리엔지어링기술을 (주)듀폰이 국내에 도입한다.

듀폰은 사고 변압기의 코아와 외함등을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압기의 용량증가도 꾀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에 적용시키기로 하고 관련수요처와 협의중이다.

듀폰의 한 관계자는 "더 큰 변압기 구입이나 사고 변압기의 수리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빨리 변압기를 대체하기 위해 전력회사나 산업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나 제조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데 비해 이 기술을 채택할 경우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대형변압기를 옮겨야 하는 점등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현재 한전등 관련수요처와 이기술의 도입에 대한 각종사항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기술을 채택할 경우 더많은 도체를 삽입할 수 있어 동손이 줄어들고 용량이 증가되는 코일 설계가 가능하며 아라미드 절연지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신뢰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압기 재설계시 짧은 시간내에 변압기 용량증가를 함께 하는 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인텔레콤, 獨RWE사에 전력통신기술 시범 공급

전력 벤처기업인 기인텔레콤(대표 : 이기원 http://www.keyintelecom.com)이 자체 개발한 전력통신기술을 독일 최대의 전력회사인 RWE사에 공급하는 시범사업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2월 23일 RWE사와 전력선에 10MHz급의 고주파 신호를 실어 초고속가입자망 통신을 실현시켜주는 전력선통신기술을 제공키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인텔레콤은 독일 에센시에 본사를 둔 RWE사를 통해 유럽지역 대상의 전력선 통신사업 확대를 위한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 계약 내용에 따르면 기인텔레콤과 RWE사는 올 연말까지 독일지역 대상의 전력선통신서비스 시범 사업을 마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지역 전력선통신기술 보급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 경우 기인텔레콤은 RWE사가 2001년부터 시작할 유럽전역 대상의 전력선통신사업을 위한 네트워킹 장비 일체를 RWE사에 공급하게 된다.

이 회사는 이달중 이 시범계약에 이어 유럽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세일즈 마케팅 협력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전력선통신기술은 기존 전력선을 이용해 초고속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로 저출력 신호를 사용, 통신을 하더라도 일반 가전기기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단 신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전력선을 통해 음성 데이터 인터넷 서비스 등을 2Mbps 수준의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가입자망 분야 및 홈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존 전력선망을 그대로 활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서비스용 솔루션으로 최근 급속히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기인텔레콤은 올초 1Mbps급 전력선 통신모뎀 시제품을 개발해 전력선을 통한 음성데이터 전송기술 확보 및 모뎀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99년 12월 이 기술을 기반으로 10Mbps급 고속전력선 통신망 기술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오는 6월까지 2Mbps급 전송속도를 갖춘 통신모뎀의 상품화를 위한 개발을 마치고 대량생산 준비를 완료, 7월부터 독일 및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도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인텔레콤은 24일부터 독일 하노버시에서 열리는 세빗2000쇼에서 이 기술을 응용한 모뎀(모델명 e-매직)을 이용한 제품 서비스를 실연할 계획이다.

정부조달 우수제품 협의회 발족

중소·벤처기업들로 구성된 '정부조달우수제품협의회'가 정식 발족됐다.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인정서'를 획득한 중소·벤처기업 301개사는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강당에서 '정부조달우수제품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번우(케이디파워 회장)씨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의회는 앞으로 정부구매 우수제품인증업체 회원상호간의 기술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각사가 개발한 우수제품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공급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제품 및 기술개발에 적극 기여하고 국가기술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정부조달우수제품협의회 창립에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조달청이 실시하고 있는 우수제품인정서를 획득한 전기전자분야의 영남전기엔진니어링, 영일전기, 케이디파워, 파워테크등 28개 업체와 정보통신 분야의 이지테크, 재우전자, 모나미컴퓨터시스템등 15개 업체, 기계분야의 ENE시스템, 로알정공, 삼남기계등 28개 업체등 총 301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편 조달청은 우수제품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우수제품 선정을 1,000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지원 불만땐 신문고 울리세요.

'보증지원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신문고를 울려 주세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고객불만 수렴을 위해 신문고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19일 기술신보는 전국 영업점 및 기술평가센터의 보증거절과 감액지원 등의 불만을 가진 기업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본부와 기술평가센터에 신문고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술신보는 민원을 제기한 기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 보증거절 사유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보증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업점에 보증지원을 적극 권고하게 된다.

민원 제기 기업이 신문고에 의한 검토결과에도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절차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했다.

기술신보는 "신문고제고의 신설과 보증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만을 최대한 수렴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신문고 연락처 : 서울지역본부(02-789-9273), 경기지역본부(0331-216-9892/4), 충청호남지역본부(042-472-0601/3), 영남지역본부(051-460-2371), 기술평가사업본부(02-789-9327)〉

中企 1천개 수출지원 '수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중진공은 올해도 1천개 수출유망기업을 선정·지원하는 한편 선진국시장 개척 프로그램인 '베스트 오브 코리아' 사업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확장한다.

또 현지 직접 판매사업을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도 미국 시카고의 경우 대상업체를 현재 5개에서 10개 업체로 늘리고 오는 4월부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5개 업체를 선정, 시행에 들어간다.

중진공은 전년도 수출실적 20만달러 이상인 업체로 첨단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우선으로 1천개사를 유망수출중소기업 대상으로 선정,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자금의 우대 지원은 물론 각종 수출마케팅 및 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조사 및 마케팅 에이전트를 선정, 선진국 시장에 대한 단기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련된 '베스트 오브 코리아'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14개사에 이어 올해는 50개사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업체의 경우 업체당 1개 품목에 한해 컨설팅비용 3,500달러가 지원된다.

선진국 시장에 직접 나가 현지에서 사업가능성을 타진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도 확대된다.

1998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국 시카고 인터베이터의 경우 기존의 5개 업체어서 올해 5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카고 인큐베이터의 경우 2개사가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 지난해 3,400만달러의 현지 판매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도 인큐베이터를 마련, 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이 밖에 우수중소기업제품의 해외홍보 지원사업으로 우수 수출제품의 경우 영문, 인터넷 무역일보에 2주간 무료홍보를 해주고 바이어스 가이드에 대해서도 광고경비의 70%를 지원해 준다.

또 오는 6월과 9월에 미국과 일본의 바이어를 초청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실거래성사 위주의 미니 부품수출 구매상담회를 수시로 기획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수출자문단 지원과 종합상사 연계지원, 인터넷 중소기업관의 운영을 대폭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중진공 수출지원팀의 이은한 부장은 "중진공은 실적홍보 위주의 지원사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처는 중진공 수출지원팀(전화 : 02-769-6951/3)

MOF 생산 '회복세'

MOF(계기용변압변류기)업계는 최근 국내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생산실적이 IMF위기 이전

인 '97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한전과 한국전기연구소가 전수시험으로 수행하고 있는 MOF 성능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 MOF 업체들은 작년 한해동안 총 13,740대를 생산해 지난 '97년 14,991대의 91.65% 수준에 육박했다. 또한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98년(9,612대)보다는 42.9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MOF 제조업체들은 MOF 출하 직전에 개개 생산품에 성능시험을 받아 시험성적서를 작성해 시판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시험실적은 업계 생산실적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통계이다. 국내 8개 KS업체들은 현재 한전으로부터 비오차시험만 받고 있으며, 6~7개 비KS업체들은 전기연구소로부터 전기적 기계적 강도 등 전반적인 시험을 받고 있다.

작년 생산실적을 업체별로 보면, 최대 생산업체인 서울전기제작소, 영화산업전기제작소가 각각 2,828대('97년 2,898), 2,543대('97년 2,628대)로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한편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약 15%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MOF 업체별 성능검사 시험 실적〉

	회 사	시험 대수			비 고
		'97년	'98년	'99년	
한전시험실적 (KS업체 대상)	(주)서울전기제작소	2,898	1,753	2,828	1,909대와 별도로 634대를 전기연구소에서 시험검사 수행
	영화산업전기제작소	2,628	2,030	1,909	
	삼흥중전기기공업(주)	1,927	1,162	1,198	
	삼능전기(주)	1,412	910	1,099	
	중원전기공업(주)	1,070	879	936	
	(주)삼능전기제작소	674	153	581	
	태무전기	460	295	380	
	삼능전기(인천 소재)			833	833대와 별도로 약 200여대를 전기연구소에서 시험검사수행 ('98년말 KS획득, '99년부터 한전에서 시험)
	소 계	11,069	7,182	9,764	
전기연구소 검사 실적	6~7개 비 KS업체	3,922	2,430	3,976	'99년 실적중 약 800여대는 영화,삼능(인천)등 2개 KS업체가 수행
총 계		14,991	9,612	13,740	

T5, 고효율품목 포함될까?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품목 확대를 위한 세부절차를 밟고 있어 T5형광램프(관경 16mm)가 대상품목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월 3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효성전기공업(주)(대표 : 최인효)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으로 신청한 T5형광램프가 1차 심사를 통과, 2차 심사를 받고 있다.

2차 심사가 끝난후에는 공청회를 통해 3·4차 심사를 거치게 되고 최종 품목 고시는 8월경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T5형광램프를 생산하거나 개발중인 국내기업은 금호전기(주)와 효성전기공업(주)로 금호전기는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중에 있으며 효성전기는 '98년 11월 T5형광램프의 형식승인을 완료, 월 2~3만개 정도의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전기 관계자는 "시장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획득할 경우 시장 개척이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T5형광램프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는 것에 대해 "국내 시장에서 이 제품에 대한 보급이 필요한지와 국내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제하고 "T8형광램프 보급률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T5형광램프를 고효율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으로 인정해 놓을 경우 이미 제품 실용화를 거친 외국업체에게만 이득을 줄 수 있다"며 "그러나 효성전기제품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에너지절약에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면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北경수로 본공사 착공

KEDO-한전간 북한경수로 주계약이 지난 2월 3일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본공사(TKC)가 본격 시작됐다.

한전과 북한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에 따르면 이번 본공사 착수는 KEDO-일본국제협력은행, KEDO-한국수출입은행간의 융자계약이 2월 2일과 3일 각각 발효, KEDO의 재원 확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턴키 수주자인 한전은 이전까지의 초기현장공사(PWC) 대금 미지급분 약 4~5천만달러와 TKC 착수금 약 7~8천만달러를 이달중에 발주자 KEDO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KEDO는 이

공사대금을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으로부터 약 1천 382억원, 약 592억원을 각각 융자해 조달할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번 북한경수로 공사 융자금을 작년 12월 국채를 발행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1천498억원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전 PWC계약에 따라 14일까지 남아 있는 PWC 물량은 TKC에 흡수돼 PWC계약조건에 의거해 별도 수행된다.

한편 KEDO-한전간 주계약, KEDO-한국수출입은행간 융자계약은 작년 12월 15일, KEDO-일본국제협력은행간 융자계약은 지난 1월 13일 각각 체결된 바 있다.

지상일체식 임시수전설비 개발

임시전력 수전설비를 기존 H형 전주식에서 지상일체식으로 제작해 판매, 임대하는 업체가 국내 처음으로 생겨나 신선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를 개발한 업체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동일전력(대표 : 윤석희)이다.

이 회사는 '98년 11월 설립된 신규업체지만 누구도 엄두를 내지 않던 분야를 새롭게 개척, 임시전력 수전설비분야의 새장을 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상일체형 임시체력 수전설비'는 내구성, 안전관리, 가격 등 모든 면에서 H형 전주식 수전설비보다 월등하다는게 동일전력의 설명이다.

"배전선로의 정전사고 가운데 수전설비의 노후화와 조류에 의한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일체형 수전설비는 고압기기를 큐비클 내부에 설치하므로 개방된 전주식보다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윤석희 사장은 이외에도 지상에 설치함으로써 설치, 보수, 점검이 편리하며 안전사고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뛰어난 내구성과 안전성에도 불구 기존 전주식 수전설비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식과 달리 임대가 가능하므로 수용가 및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절반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동일전력이 새로운 발상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 리드의 오랜 전기분야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대형 수용가의 전기주임으로 근무한 경력과 '75년 1종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해 오랫동안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지휘하고 '90년대 중반에는 수배전반 제작회사를 직접 운영했던 경험들이 큰 원천이 됐다.

동일전력은 작년 10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올 5월 취득 목표로 ISO9002를 준비하고 있다.

이 수전설비는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은 물론, 작년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건축자재박람회의 임시전력에 설치돼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기도 했다.

"지금은 대구본사를 중심으로 영업과 A/S를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난달 문을 연 서울지사, 대전지사의 활동영역을 키우는 한편 점차 지역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한 고품질의 전력설비를 저가에 공급하겠다

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윤사장과 동일전력, 향후 행보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독립운전방식 UPS 국내 최초 개발

UPS(무정전전원장치)간 정보교환 신호선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운전방식(Wireless)의 병렬운전 UPS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UPS의 신뢰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전기연구소(소장 권영한) 변영복 박사팀은 세방산업주식회사와 공동으로 UPS의 핵심기술인 Wireless 병렬운전 알고리즘과 DPS(Digital Signal Processing : 디지털 신호처리)를 적용한 실시간 디지털 제어기를 이용한 병렬운전 UPS를 개발해 성능평가 및 기술이전을 마치고 상품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병렬운전 UPS가 운전시 UPS간 부하전류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신호선이 필요했고 UPS의 위치가 떨어져 있을 때 신호선의 길이가 길어져 적용할 수 없는 등 기존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였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성과확산사업과 세방산업주식회사의 연구비투자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온라인 컴퓨터 시스템, 통신시스템 등 급전 신뢰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스템의 전력공급장치용으로 전량 수입되던 것을 국산화 한 것으로 2001년부터 연간 5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와 연간 50억원 이상의 해외수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스템 개발로 향후 첨단 전원공급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산전원시스템 등도 국내기술에 의해 개발·실용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재래시장 전기시설 '불량' 적발

전국 870개 재래시장 점포의 1.8%가 지난해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특별안전점검에서 누전차단기 동작불량 등 전기안전시설 불량으로 적발됐다. 적발내역을 보면 누전차단기 동작불량이 271개 점포(31.1%)로 가장 많았고 비닐코드선 사용 212개 점포(24.4%), 접지상태 불량 159개 점포(18.2%), 절연저항 114개 점포(13.1%), 옥내배선 불량 26개 점포(3%) 등의 순이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장 장정곤)는 겨울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653개 재래시장의 4만 8,478개 점포에 대해 전기설비 특별 안전점검 실시 결과, 이 같은 불량시설을 적발해 시·도에 개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무료 개·보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점검에 누전차단기 83개, 배선용 차단기 19개, 개폐기 1개, 퓨즈봉투 81개 접지봉 20개, 전선 129m, 배선기구 6개 등 모두 2,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